필적 담긴 송광사 가풍과 역사

송광사 성보박물관
‘송광사의 필적기행’ 展
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라남도순천군조계산송광사성수전상량문 기판(1903년).

상량문 기판은 고종 연간 한성부판윤, 홍문관제학,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이순익(1827~)이 쓰고, 내각 총리대신, 대광보국숭록대부, 법규교정소 총재를 지낸 운용선(尹容善 1829~?)이 찬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송광사의 가풍과 역사를 담은 필적들이 전시된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2월 6일(개막식 오전 9시 30분)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전 ‘송광사의 필적기행’을 개최한다.

“성상께서 51세를 맞이한 경사에 마침내 대중들이 삼축(三祝)하는 마음으로 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성수(聖壽)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까이로는 고운사의 전례를 끌어다 향을 피우고 마음을 재계하며, 멀리는 맥구인(麥邱人)의 정성을 본받아 장수를 바라며 머리를 조아리니, 이는 그 생성함육(生成涵育)이 사사로움이 없는 상천(上天)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며 백성들과 함께 소원한 것이다.”

위는 송광사 성수전 건립 상량문의 내용 중 일부다. 성수전은 고종황제의 성수 망육(51세)을 맞아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내린 황실기도처였다.

상량문 기판은 고종 연간 한성부판윤, 홍문관제학,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이순익(1827~)이 쓰고, 내각 총리대신, 대광보국숭록대부, 법규교정소 총재를 지낸 운용선(尹容善 1829~?)이 찬했다.

이번 특별전은 송광사 경내에 걸려있던 현판과 시판, 기판, 주련, 금석문 등을 전시하고 그 내용과 유래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현판 · 시판 · 금석문 · 주련 · 불화
암막새 · 청동그릇 · 동전 등 유물도
〈송광사의 필적기행〉 책 함께 출간

또한 현재 각 건물에 걸려있는 현판류 등을 제외한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된 불화 및 기타 유물도 선보인다.

또한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함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송광사의 현판류와 실제 건물에 걸려 있어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시판 등에 대한 해제와 번역 등을 담은 〈송광사의 필적기행〉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어려운 한문이나 초서체로 쓰여진 현판, 시판은 물론 경내 곳곳의 바위에 새겨진 인명(人名)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문학적으로도 풍부한 자료를 담은 책은 송광사 경내는 물론 산내 암자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설서 역할도 한다.

전시는 도입부에 ‘십리 벚꽃 길을 끼고 돌아서’라는 주제로 송광사 산문부터 일주문까지에 남아 있는 현판, 금석문 등을 풍경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이후 ‘그대여 헛되이 고개 돌리어 가지 말라-경내 주요 전각’과 ‘암자로 가는 길-여기 오면 어느 누가 한가한 이 아니 되랴’에서는 우화각, 사천왕문, 대웅보전, 영산전, 설법전, 국사전 등 경내 중심부와 화엄전구역과 부도암, 감로암, 천자암 등 산내 암자의 현판, 주련, 시판과 ‘불조전 53불도’ 등이 공개된다.

전시되는 주요 유물로는 조선 후기의 문관으로 이조참의, 충청도관찰사, 대제학,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역임한 연천 홍석주(1744~1842)가 1828년 지은 ‘연천옹유산록(淵泉翁遊山錄)’ 기판, 1938년 염재 송태회가 지은 ‘송광사 내외팔경’ 시판, 1750년 완화 처해(玩華 處解) 스님이 쓴 ‘침계루에서 짓다(근차판상원운 謹次板上元韻)’, 1903년 연안 이순익이 쓴 ‘성수전상량문(聖壽殿上樑文)’ 등 현판류와 보물 제1043호 송광사 16국사 진영 중 제1세 보조국사,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응진전 16나한도, 보물 제1914호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보물 제1909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조선 광무 4년(1900)에 다시 쓴 ‘칠전간당론(七殿看堂論)’과 13가지 절목(節目)’ 기판(記板)도 전시된다. 이 ‘칠전간당론’ 기판은 조선후기 선원 청규로 안거기간과 해제는 물론 평상시 사찰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덕목 등을 자세히 밝혀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보조국사 이후 당시까지 전해온 송광사의 선풍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산내암자 보조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 암막새, 청동 그릇, 조선시대 동전 등의 유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061)755-0107.

TV 보는 부처님, 백남준의 부처님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 展
학고재갤러리 1월 22일~4월 5일
백남준을 화두로 ‘TV 부처’ 등
영상, 회화, 조각 등 26점 전시

학고재갤러리는 1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신관에서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 展을 개최한다.

‘미래는 지금이다’는 문장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학고재갤러리가 21.2세기에서 바라보는 미술의 ‘미래와 지금’으로, 어제에 살며 오늘의 시간을 끌어다 썼던 백남준을 화두로 정성화, 김현식, 정현, 안토니 곰리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백남준의 ‘TV 부처’ 등 회화, 조각, 영상, 드로잉, 콜라주,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 作, TV 부처, 1974-1989, 청동 조각, TV 모니터, 폐쇄 회로 카메라.

백남준의 ‘로봇(라디오 맨, 요셉 보이스, 1987)’이 전시의 시작을 연다. 백남준의 오랜 벗 요셉 보이스(1921~1986)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제작된 작품이다. 보이스가 즐겨 쓰던 펠트 모자가 상징적이다. 로봇의 상단 모니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하단 모니터는 ‘바이 바이 키플링(1865~1936, 인도)’을 재생한다. 백남준이 ‘우주 오페라 3부작’이라고 불렀던 연작 중 두 점이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디스토피아에 천진한 안녕을 고하고, 동양과 서양은 회합할 수 없다던 러디어드 키플링에게 위성 연결한 세계로 회답하고 세기말의 로봇이 오늘을 응시한다.

단색화의 거장 정성화는 반복의 미학을 담고 있는 ‘무제 A’에서 철저한 계산과 수행적 행위로 가득 찬 듯 비어 있는 한국의 여백을 구현한다. 반복의 미학은 동시대 작가 김현식으로 이어진다.

안토니 곰리의 ‘커패시터, 2008’은 2001년부터 제작한 동명의 조각에 대한 드로잉이다. 원작은 스스로의 몸을 본뜬 틀에 수천 개의 금속막대를 이어 붙인 조각이다. 안토니 곰리는 신체를 주물로 뜨는 과정을 정신수련에 비유한다. 수없이 뻗은 막대의 반경은 신체와 자아의 확장을 암시한다.

전시의 시작이었던 백남준이 전시를 마무리한다. 백남준의 ‘TV 부처’가 전시를 마무리한다. 백남준의 자화상 같은 작품이다. 백남준은 1974년 독일 쾰른 시립미술관에서 직접 법의를 입고 TV 앞에 앉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불상이 모니터와 폐쇄회로 카메라를 마주본다. 실시간으로 녹화한 영상이 모니터에 송출된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모니터 속 자신의 환영을 응시한다.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모습도 화면에 함께 떠오른다. 미디어 매체가 범람하는 문명시대, 진실에 대한 성찰을 고무하는 작품이다. 21세기의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오늘에서 26점의 예술작품은 내일을 향해 가는 인류에게, 낯선 날들을 향해 가는 인류에게 말한다. “미래는 분명 지금이다”고. (02)39-4937. 박재완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1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한다. 음악, 가족, 문학‘ 세 가지 테마로 영화상영, 가족연극, 북 토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1월부터 4월은 ‘음악’을 테마로 ‘위플래쉬’ 등의 영화와 연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를 공연한다. 5월부터 8월은 ‘가족’을 테마로 ‘코코’, ‘언더독’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그림책 함께 보기’를 주제로 북 토크가 진행된다. 9월부터 12월은 ‘문학’을 테마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등의 영화 상영과 ‘시 이야기’를 주제로 북 토크가 진행된다. 1월 29일은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 ‘위플래쉬’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16시부터 상영한다. 박재완 기자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